

「오카야마시장 메일메거진 (121)」2019 년 10 월 16 일 호

【우키타 히데이에 공의 소철】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얼마 전 하치쵸 섬의 우키타 히데이에 공을 기리는 그룹 「하치쵸 섬 쿠후쿠 모임」에서 약 400 년 전의 히데이에 공이 직접 심었다는 소철을 분주 해 주셨습니다.

받은 소철은 히데이에의 탄생지로 불리는 카메야마 성터 (오카야마시 히가시구 누마)에 쿠후쿠 모임의 여러분과 함께 식수하기로 하고 식수식에 가는 길에 저는 히데이에의 기구한 생애에 대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히데이에의 아버지인 나오이에는 이 성을 손에 넣고 나서 전국의 총아로 부상한 일대에 다이묘가 됩니다.

뒤를 이은 히데이에는 도요토미 정권하의 임진왜란에서 총대장을 맡는 등 젊어서는 활약했지만, 히데요시 몰락 후 우키타

소동으로 유력 가신 단이 해산, 그 후 세키가하라 전투에 패해
개역되어, 시마즈 집에 숨어 사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때 히데이에는 출가 스스로를 휴복이라고 칭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도쿠가와에게 복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케합니다.

전국 시대 일본에는 가메 야마 성 같은 산성이 5 만 곳도 있어
당시의 인구에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200 명에서 300 명으로
하나의 산성이 있던 것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산성은 살기 어려운 곳이 있지만 적의 공격을
방지하기 쉽고 이러한 산성에 거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항상
싸움에 몸을 두고 내일도 알 수없는 세상에 살게 될때 가나스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데이에는 하치 죠지마에 흘러 간 후 이름을 휴복에서
큐복으로 개명합니다.

생각하면 히데이에는 전국 무장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열심히
이루고자 했지만 섬에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만져 평온한

생활을 보냈다는 것을 계기로 스스로를 큐복이라고 칭했던 것은
아닐까요

카메야마 성터의 소철을 통해 히데이에의 마음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했던 하루였습니다.,